

2025년 02월 27일 (목)

Analyst. 김주형, 진재현, 주한송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보고서]

# GROWTH Industry

## 다가오는 기회, 우크라이나 재건



# 목차

**Part 1.**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점검

**Part 2.** 우크라이나 피해 규모 및 재건 계획

**Part 3.** 한국 참여 현황

**Part 4.** 관련기업

**기업분석**

SG (255220)

아이특시 (052770)

## Intro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 가까이 지속되며 장기화 되고 있다. 전쟁 발발 직후 대면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결렬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다르다. 전쟁 피로도가 극심해져 빠른 종전 협상에 대한 촉구를 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의 평화 협상 계획도 집권 이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복구 및 재건에 필요한 총 비용은 4,860억 달러(약 700조원)로 추산된다. 전쟁이 끝나면 복구에 대한 투자금은 집행될 예정이며, 건설, 철도, 인프라 등 여러 영역에서 재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SG, 아이특시 등 주요 기업들은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 및 협상을 진행하며 재건 사업에 대한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의 중점 분야와 그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참여 현황 및 수혜 요인들을 정리했다.

#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으로

3년간  
장기화된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3년 가까이 장기화 되고 있다. 전쟁 발발 직후 대면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결렬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철수 및 영토 보전, 러시아는 점령지 영유권 보유 및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등을 원하며 뚜렷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 피로도가  
극심해진 상황

2024년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전년 대비 6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 절반 이상이 가능한 빠른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을 원하고 있다. 이는 전쟁 초기에 응답자의 73%가 승리할 때까지 싸우기를 원했던 것과는 매우 상이한 모습이다. 또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협상을 선호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상당수(52%)는 평화를 대가로 일부 영토를 양도하는 데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종전에 대한  
트럼프의 굳은 의지

'25년 2월 22일(현지 시간) AP에 따르면 세르게이 랍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화 협정을 위한 정상회담의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러시아가 밝혔다. 다만 정상회담 준비 노력이 아직 초기 단계라며, 이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 특사가 2주 안에 만나 고위급 회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긴 시간 끝에 종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우크라이나 국민의 전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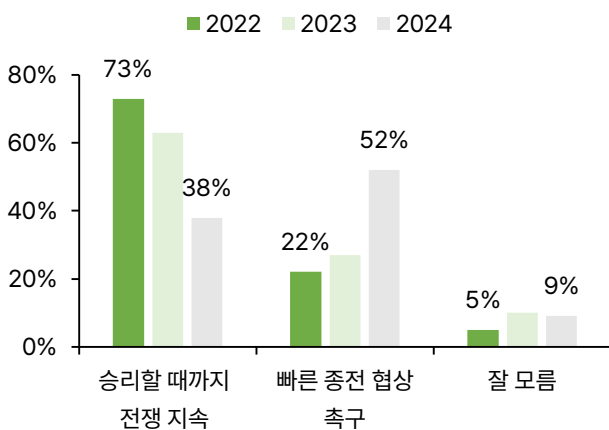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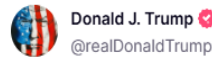


그림 2. 트럼프 SNS 게시물 발췌('25년 2월 20일)



He refuses to have Elections, is very low in Ukrainian Polls, and the only thing he was good at was playing Biden "like a fiddle." A Dictator without Elections, Zelenskyy better move fast or he is not going to have a Country left.

17.7k ReTruths 64.8k Likes

Feb 20, 2025, 12:47 AM

그는 선거를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여론 조사에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잘하는 것은 바이든을 '바이올린처럼' 다루는 것뿐이다. 선거 없는 독재자, 젤렌스키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 2. 우크라이나 피해 규모 및 재건 계획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세계은행(WB), 유럽연합(UN), 우크라이나 정부가 합작해 작성한 RNDA(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총 전쟁 발발 후 2년간 직접 피해액은 약 1,52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자산 및 인프라 파괴로 인한 비용을 의미한다. **운영 비용,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수익 등의 경제적 손실액은 약 4,990억 달러로 추산된다.** 마지막 보고서인 RNDA3(2023.12)가 발간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복구 비용은 더욱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과 운송 부문에  
주목

직접 피해액 기준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문은 주택(약 560억 달러, 37%) 운송(약 340억 달러, 22%) 상업/산업(약 160억 달러, 11%)** 순이다. 특히 주택 부문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총 주택 재고의 10%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전국의 200만개 이상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어 대피소를 구하고 있다. 운송 부문 역시 전쟁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분야로서 **290개 이상의 교량, 8,400km가 넘는 고속도로 및 국도, 50km가 넘는 철도 등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

그림 3. 우크라이나 지역별 피해 정도('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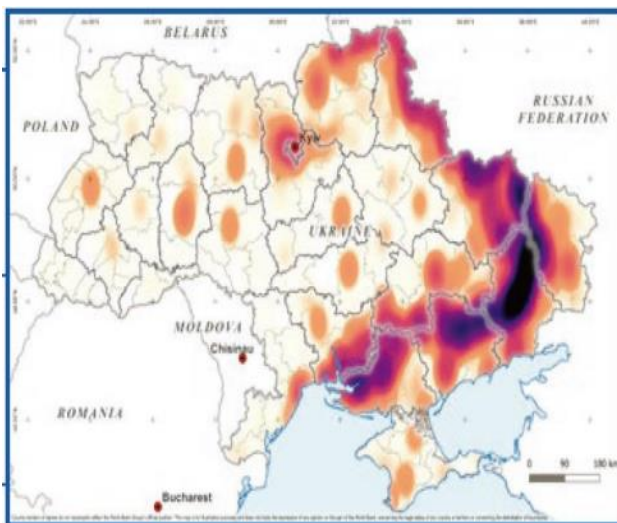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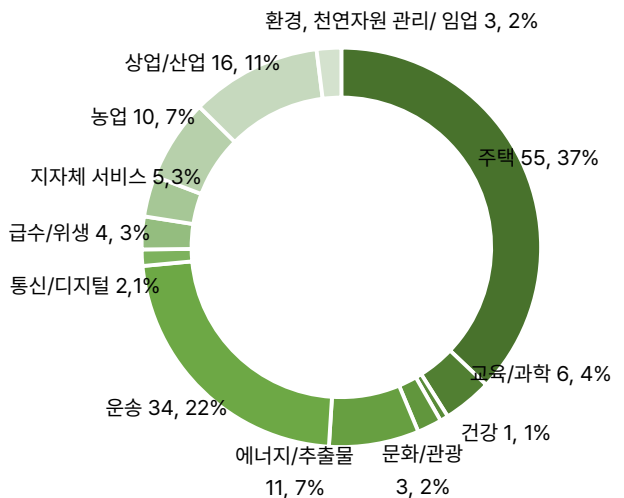


그림 4. 부문별 '피해' 금액(단위:십억 달러)



자료: RNDA3, 그로스리서치

자료: RNDA3, 그로스리서치

전쟁 과정에서 계속 진행되었던 재건 논의

전후 재건에 대한 계획의 경우 '22년 4월부터 우크라이나 정부 주도로 '국가재건협의회'가 창설된 이후 서방 주요국과 국제 기구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 URC)**를 3차례 개최하며 지속적인 논의가 선행되어 왔다.

재건 규모는 4,860억 달러 (약700조)

직접 피해와 손실에 따른 복구 및 재건에 필요한 총 비용은 **4,86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23년 우크라이나 명목 GDP의 약 2.8배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투입될 전망이다. 부문별 재건 비용의 경우도 피해액과 마찬가지로 **주택(880억 달러, 17%)**이 가장 크며, **운송(약 740억 달러, 15%), 상업 및 산업(675억 달러, 14%)** 등이 그 뒤를 이은다. 막대한 직접 피해를 입은 교통/운송, 주택 건설, 에너지가 핵심 복구 분야로 꼽히고 있으며 우선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 사업은 각국의 원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약정액은 미국 1,189억 유로, EU 기관(EU 집행위, EU 이사회, 유럽투자은행 합계) 1,157억 유로, 기타 공여국 1,651억 유로이다. **전체 원조 약정액 2,672억 유로 중 1,297억 유로(49%)가 군사적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남은 약정액은 재정 및 인도적 지원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주요국 정부 및 국제기구 원조와 더불어 **신탁 기금 마련, 러시아 압류 자금, 민간투자 활용 등의 방안**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5. '복구' 금액 상위 부문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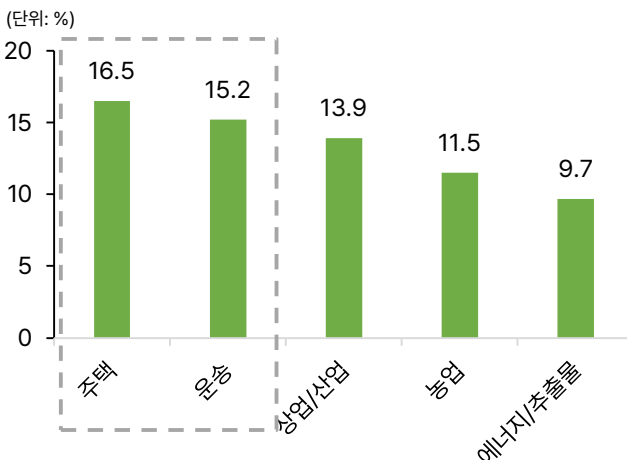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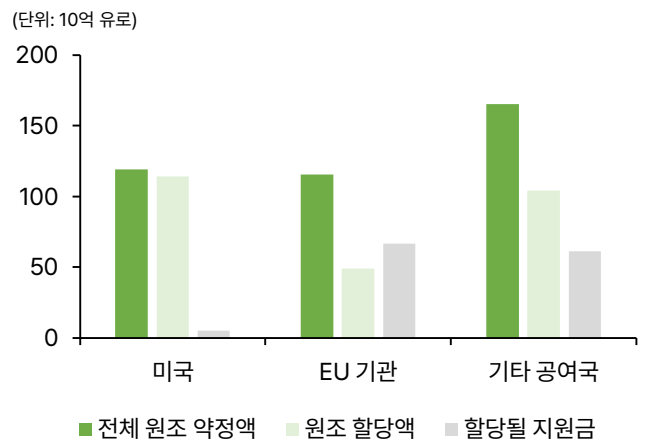


그림 6. 국제사회의 원조 규모('22.01~'24.12)



자료: RND3, 그로스리서치

자료: kiel institute, 그로스리서치

### 3. 한국 기업 참여 현황

30억 유로 원조  
(약 4조 5,400억원)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체 약정액은 30.5억 유로를 약정했다. 대부분의 약정액이 금융 및 인도적 지원에 해당한다. 명시된 재건 계획에 의하면 전쟁이 끝나면 남아 있는 지원 할당액을 기반으로 재건 사업에 대한 역할이 배분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상위 지원국에 속하지만, 전체 비중은 낮으므로 큰 폭으로 기여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현재까지 수주가 약속된 부분들은 유효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약속액이 있는 만큼 재건 사업에 대한 부분 참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확인된다.

원팀코리아로  
재건 사업 참여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를 구성해 재건 사업 참여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배분될 역할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하여 발표한 6대 선도 프로젝트의 경우 키이우 지역(수도권) 교통 마스터플랜, 중부 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시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지원, 주요 철도노선 고속화(키이우~폴란드 등) 사업이다.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택/건설, 운송 부문에 해당한다.

민·관 합동  
시너지 기대

대표단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한 원팀코리아에 포함된 삼성물산, HD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KT,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18개의 주요 민간 기업들도 도시개발, 철도 및 공항 건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7. 한국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6대 선도 프로젝트

프로젝트	내용	참여 기관
키이우 지역 스마트 교통	파괴된 교통시설을 스마트 및 저탄소 기반의 모빌리티 인프라로 복구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사업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중부 우만시 스마트시티 계획	우만시를 모빌리티, 재난, 재해 대응, 친환경에너지 등 스마트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솔루션 제시	KIND, 한국수자원공사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시스템 현대화부터 안전시설 장비, 활주로 정비, 확장 등 종합계획	한국공항공사
부차시 하수처리 시설 재건	하수처리시설 재건 관련 설치 방안 마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헤르손주 카호우카 댐 복구	댐 및 발전소 재건을 위한 기술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주요 철도 노선 고속화 및 개선	우크라이나 측이 제안한 주요 노선(키이우-폴란드 국경 등) 사업	국가철도공단

자료: 국토교통부, 그로스리서치

## 4. 관련 기업

그림 8.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 요약

기업명	기업 개요	시가총액
<b>SG</b> (255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9년 설립. '18년 코스닥 상장</li> <li>주요 사업: 아스콘, 도로포장, 아스콘친환경 설비 제작/설치</li> <li>매출비중: 아스콘 67%, 상품 및 공사 매출 33%</li> <li>국내 1위 아스콘(아스팔트 콘트리트) 전문 기업</li> <li>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재건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SG Ukraine)</li> </ul>	3,027억원
<b>아이특시</b> (0527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7년 설립. '02년 코스닥시장 상장</li> <li>주요 사업: 게임 퍼블리싱/리퍼블리싱, 마케팅 플랫폼, 신규 기타 사업 영위</li> <li>매출비중: 게임 및 플랫폼 85.29%. 기타(진단키트, 화장품) 14.71%</li> <li>우크라이나 유일의 판유리 생산 'BFG'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합작투자 협약을 체결</li> </ul>	583억원
<b>현대로템</b> (064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9년 설립. '13년 코스피 상장</li> <li>주요 사업: 철도차량, 특수중기, 산업기계, 항공기계 부분품 제조 및 판매</li> <li>매출비중: 디펜솔루션 50%, 레일솔루션 36.6%, 에코플랜트 13.4%</li> <li>'10년 우크라이나 고속철 90량 수출 이후 유지·보수 사업 진행</li> <li>'17년 우크라이나 철도청 산하 URSC와 스전동차 12량 유지보수 사업 수주</li> </ul>	9조 9,319억원
<b>HD현대 인프라코어</b> (042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0년 설립. '01년 코스피 상장</li> <li>주요사업: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li> <li>매출비중: 건설기계 (굴착기, 휠로더 등) 72.1% 엔진 27.9%</li> <li>과거 우크라이나 건설 기계 시장 점유율 1위 기록</li> </ul>	1조 7,512억원
<b>다산네트웍스</b> (0395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3년 설립. '00년 코스닥시장 상장</li> <li>주요 사업: 통신장비 개발 및 공급 기업</li> <li>매출비중: 네트워크 29.8%, 기타(의류 판매, 자동차 부품, 제과 등) 70.2%</li> <li>'23년 우크라이나 전력 및 통신 재건 지원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발표</li> </ul>	1,581억원
<b>포스코 인터내셔널</b> (047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0년 설립. '01년 코스피 상장</li> <li>주요 사업: 무역(철강, 식량, 친환경소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영위</li> <li>매출비중: 무역 사업 86.8%, 에너지 사업 13.2%</li> <li>'23년 그룹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태스크포스(TF)를 구성</li> <li>철강, 식량, 2차전지, 소재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의 5대 영역에서 재건 사업 추진</li> </ul>	8조 1,892억원

자료: 그로스리서치

### 국내 1위 아스콘 전문 기업

동사는 '09년 설립되어 '18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국내 1위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업으로, 주력 제품인 아스콘은 항만, 터널, 공항 활주로, 도로 등의 포장에 사용된다. '3Q24 기준 매출 비중은 아스콘 56.4%, 상품 및 공사 매출은 36.3%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주주로는 최대주주(박창호 대표)를 포함한 특수 관계인이 30.5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 친환경 제품 '에코스틸아스콘'

아스콘은 아스팔트와 골재 등의 원자재를 가공하여 생산하는 제품으로 일정 온도 이하에서는 굳어버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120분 이내 도착 가능한 거래가 요구된다. 게다가 제품적인 차별성이 없어 내수 위주로 시장이 구성된다. 그러나 동사는 차별화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아스콘 제품의 연구 개발을 수행해왔다. 특히 **산업 부산물인 슬래그를 활용한 친환경 아스콘인 '에코스틸아스콘'을 개발했다.** 천연 골재 대신 강한 제강 슬래그를 사용하여 아스콘의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일반 아스콘과 비교하여 고강도, 저소음, 내구성, 경제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도로포장상태평가에서는 **포장 수명이 약 64개월로 일반 아스콘 포장 수명(약 30개월)의 약 2.2배**를 기록하기도 했다.

### 주목할 것은 우크라이나 도로포장 협력 추진

동사는 개발한 신제품 '에코스틸아스콘'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3년 5월 **우크라이나에 특허 출원을 진행했던 '에코스틸아스콘'은 '24년 12월에 당국의 승인을 확보했다.** 또한 '23년 12월, '24년 1월 **우크라이나 현지 아스콘 생산/포장 업체 2곳으로부터 총 350억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으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핵심인 '도로 복구 사업'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동사는 현지 위탁생산 계약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에 있는 올레크 산드리아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대한 임차 계약을 맺으며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우크라이나는 철강 강국으로 풍부한 슬래그를 보유하고 있기에 신제품 생산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9.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자료: 산업 자료, 그로스리서치

그림 10. SG 에코스틸아스콘 특징



자료: SG, 그로스리서치



### 게임 전문 기업을 넘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까지

동사는 '97년 게임회사로 설립되어 '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으로 게임 퍼블리싱 및 리퍼블리싱, 헬스케어, 무역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3Q24 기준 매출 비중은 게임 및 플랫폼 85.29%, 기타(진단키트, 화장품 등) 14.71%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및 현지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주요 주주로는 (주)케어마일 및 특수관계인이 25.2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케어마일은 전봉규 아이톡시 현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이다.

###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재건 사업 진출

게임 전문 기업인 동사가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와 인연을 맺은 것은 아니다. 전봉규 대표이사는 **2000년 초반부터 우크라이나 방송국과 미디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해왔고, 국내에서 '우크라이나통'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23년 10월 우크라이나 현지 정부 인사와 합작해 ITOXI Ukraine을 설립했다. 국방부 조달청의 공식납품업체로 등록되면서 비전투 군수물자 공급 및 피해복구사업에 참여한다. '24년 3월 우크라이나 국방부 조달청, **KG모빌리티와 함께 한국산 픽업트럭을 공급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 공공기관 입찰 3건과 미국 대사관 입찰 2건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내 픽업트럭 1,500대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유리 생산업체 BFG 합작투자

동사는 '24년 11월 우크라이나 유리 생산업체 **BFG(Berezan Float Glass)**와 현지 판유리 공장 **합작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정부 주도하에 판유리는 재건 사업에서 핵심 원자재로 선정되고 있다.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는 판유리의 70% 이상을 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수입해왔고, 유일했던 도네츠크 소재 공장은 점령 당해 **현재 판유리 내수 생산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 이후 피해복구용 판유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합작 투자한 판유리 공장은 올해부터 착공되어 2026년 2분기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22만 톤의 판유리를 생산하게 되며, 우크라이나 연간 내수 수요의 약 35% (1억 달러, 약 1,400억원) 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1. 국방부 조달청 픽업트럭 공급 협약



자료: 언론, 그로스리서치

그림 12. 아이톡시 및 BFG 협약 체결



자료: 언론, 그로스리서치



# GROWTH RESEARCH

## Compliance Notice

---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용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며,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해당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작성자는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을 발간 전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간 후에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그로스리서치에 있습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및 복제,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